

Oeko-Tex 인증 아동복의 화학적 안전성

Oeko-Tex 협회는 Oeko-Tex standard 100으로 인증된 아동복은 소비자들의 인체에 어떠한 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명 아동복 제조업체들의 유해물질 사용을 알린 그린피스 '당신의 옷장 속 몬스터에 관한 이야기 (A little story about monsters in your closet)'에 관한 연구의 뒤를 이었다.

그린피스 검사시료에 포함된 모든 유해물질(nonylphenol ethoxylates, carcinogenic arylamines, phthalates/softners, organotin compounds, perfluorinated compounds(PFCs), antimony)에 대해 Oeko-tex 100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유효한 시험규정과 유해물질의 허용치가 매년 강화되어 개정되고 있다.

Oeko-Tex 협회는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합물들의 일부는 의복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제한사항이 없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도 발견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객관적인 소비자의 정보를 위해서 그린피스의 연구 보고서에 언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과불화화합물(PFCs)은 의복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민감한 조건인 주방용구에 사용되는 테프론 코팅에서 검출될 수 있으며, 기능성 음식 포장재에 대해서는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수술용 의복에는 방지막 역할을 위해 과불화화합물로 가공처리되기도 한다. 안티몬은 폴리에스터 소재의 거의 모든 섬유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PET 음료용기나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에 사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규정 (Oeko-Tex Standard 100)과 더불어 친환경 인증과 사회적 책임 생산시설 (Oeko-Tex의 친환경 섬유 생

산 인증), 책임있는 화학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제조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접근을 통해 Oeko-Tex는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나 독성물질 제거 캠페인 (Detox campaigns)과 같이 유해 화학물 사용과 관련하여 생산구조(production chain)를 최적화하기 위해 섬유산업의 모든 회사와 소매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종소비자에게는 상점에서“믿을 수 있는 섬유제품 (confident in textiles) - Oeko-Tex Standard 100으로 유해물질을 검사함”의 라벨을 통해 모든 종류의 섬유제품 구매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www.wtin.com